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이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8일)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8월 19일 법왕루에 사찰 출입시 자동으로 전신소독이 되는 방역출입문을 설치했다. 사진은 법당 출입 전 '코로나 클린게이트'로 이름 붙여진 방역출입문을 불자대중이 지나는 모습이다. 이번 방역출입문은 구본길 스팩트럼라이팅 대표가 기증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코로나 대유행 조짐… 불교계 방역 강화

조계종 "대면 모임 중단" 방역 긴급 지침

실내 법회 50인 이하로 제한
"방역강화 선제 동참"을 당부
서울·경기·부산사찰 긴장↑
템플스테이도 중단 '셧다운'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서울 · 경기 · 부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불교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8월 18일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심각하게 증가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에 종단에서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사찰에 8월 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8월 18일까지 9차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침을 시달하며 선제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지역의 사찰에서는 8월 30일까지 초하루법회, 백중 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도 재차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와 참배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과 지침 등의 증상 유무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역학조사를 대비한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기재도 이뤄진다.

실내 법회에서는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행사는 되도록 야외 공간을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공양간과 음수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떡과 과일, 생수 등으로 공양을 대체토록 했다.

상주 대중들은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며, 하루 2번 체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대중 공용물품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살균 ·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명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지역 보건소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모처럼 기지개를 켰던 템플스테이도 일부 지역은 '셧다운'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지역 템플스테이 총 41곳의 운영을 8월 30일까지 중지한다"고 8월 18일 공지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도 8월 30일까지 운영을 중지한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정부가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며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자 해당 지역 템플스테이 및 문화사업단의 자체 시설에 대한 임시 운영 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선 사찰들의 자체 방역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으며, 백중의식 간소화와 전북 금당사로 예정된 하안거 회향 생명살림기도의 조계사 개최 등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에 따라 법당 출입 시 명단작성 및 발열점검, 대웅전 내 실시간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8월 20일 50명 이내 기도동참을 위한 고정형 좌복도 설치했다.

서울 불광사(주지 진효)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 내 동시간 인원을 50명 이내로 유지하고 예불 외 행사와 모임을 제한하는 등 긴급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전통사찰의 개방적인 전각 건물구조와 달리 현대적 건물구조인 불광사 특성상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선제적 방역태세에 나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법회뿐만 아니라 일상 예불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키로 했다. 법회에서는 집전 스님만 염불하고 참석대중은 듣고 따라 읽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 스님은 "방역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손세정제는 상시 비치 중"이라며 "백중 회향법회 및 중요 법회는 추이를 살펴서 안전지침을 더욱 확고히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백중 법회 시간을 줄였고 소모임을 모두 중단시켰다. 대신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백중 법회는 초청법사의 법문을 포함해 3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초청 법사도 없고 시간도 줄였다"며 "신행 생활은 모임이 어려우니 유튜브 방송으로 대신하고 오전에 모든 신도들에게 보내는 '홍사홍사(홍법사랑 홍법사진)'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84년 前 금산사 담긴 희귀 영상 최초 공개

종걸 스님, 1936년 촬영 금산사 영상 공개

외국인 선교사 촬영 추정돼
미륵전 현판 원래는 1개만
보물 6각다층석탑 모습도

84년 전 촬영된 김제 금산사의 모습이 담긴 희귀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제 강점기 불교관련 사진은 많이 발견됐지만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존하는 사찰 영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촬영된 이 영상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선교사업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1936년과 1946년 2차례 방한해 촬영한 영상 중 1936년 봄 촬영한 영상에 금산사와 태인읍의 무극대도교가 포함되어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공개한 이 영상은 총 120분 분량의 흑백무성 영상으로 1936년에는 금산사와 무극대도교 본당, 서울의 창경원 벚꽃놀이, 전주 근교의 선교 상황이 담겨 있으나 이번에는 53초 분량의 금산사와 무극대도교 관련 영상만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금산사 주지스님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중스님 2명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금산사 5층석탑과 방등계단에서 안내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미륵전 현판은 현재 3개가 있으나 당시에는 '미륵전' 1개만 있는 모습도 담겨있다.

보물 제27호 금산사 6각다층석탑은 본래 위치가 미륵전 우측으로 확인되며, 현재와 다른 모습은 탑 하단의 복련 위에 중대가 있어 탑 전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 중 금산사 부분 말미에는 '아름다운 나라(A Land of beauty)', 무극대교 영상에는 '이교도 숭배의 나라(A Land of Heathen Worshp)'라는 자막이 추가되어 있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이 영상은 미국인 개인이 소장 중인 영상으로 지인이 동국사 영상이라고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 금산사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며 "일제 강점기 불교관련 사진은 많이 남아 있다. 무성이지만 사찰 촬영 동영상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강산의 사찰 영상이 10초 정도 촬영된 영상은 본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각이나 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최초"라면서 "일제 강점기 금산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영상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적광전 앞으로 옮기기 전인 보물 제27호 금산사 육각다층석탑의 모습.



금산사 대중 스님들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금산사 방등계단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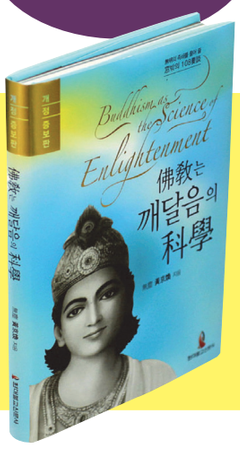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영상에는 금산사 미륵전과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대도교 본당만 촬영된 점과 자막에 이교도의 나라라는 자막이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촬영됐을 것으로 봤다. 종걸 스님은 "기독교는 최선의 종교이고 미륵사상은 이교도로 지칭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영상에 함께 촬영된 무극대도교는 대순진리회의 전신으로 1927년 4월 김현범(金賢範)이 창시한 천도교 계통의 민족종교로 출발하여 조철제가 증산교 계통의 '무극대도교(무극교)'라 개명했는데, 일제의 유사종교 철폐 정책으로 교단이 해체되면서 김제시 태인읍 태흥리 99칸 본당도 철거됐고 부산 감전동(현재 감전동 벽화마을)으로 교단을 옮긴 후에는 '태극도'라 개명하였다. 대순진리회(초기에는 태극진리회)는 태극도를 신앙하던 박한경이 조철제 사망 후 1969년에 서울 중곡동에 연 교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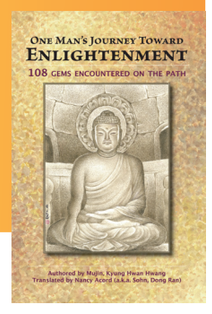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무진 황경환 지음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 1688-9099(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비움과 소통 031)945-8739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